

익산형 IT 벨리 구축한다

시·다산그룹·벤처기업협회·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원광대 협약 체결

익산시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익산형 IT 벨리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탄탄한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9일 정현을 시장과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 강삼권 (前)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영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IT벨리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정 시장이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다양한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익산형 IT 벨리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에 홀로그램 중심의 디지털 허브 구축, R&D 지원센터(다산그룹 기술연구소 분원) 설치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어 IT 분야에 최적화된 청년 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우수한 지역 청년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청년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멘토링,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할 벤처캐피탈 발굴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 이후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은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의 시대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30여년 기업가로서의 경험을 직원들과 나누며, 공직사회의 혁신과 공무원들의 도전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남민우 회장은 국내 벤처 1세대 기업 중 통신 장비 분야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다산그룹을 이끌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회장 대동령직속 청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 준비 '착착'

익산시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잔치 개최

익산시가 올 상반기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성공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국내·외에서 대규모 선수단이 방문할 예정인 만큼 지역 유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행사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전라북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 이어 6월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잔치가 연이어 개최된다.

우선 전라북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국제 규모 생활체육대회로 26개 종목에 1만여명의 국내·외 선수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육상, 철인 3종 등 8종목이 익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잔치가 6월 9일부터 3일간 지역에서 개최되며 방역조치 완료로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돼 선수단 약 3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축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에 참여하는 통합 스포츠 대회로 좌식배구, 휠체어러비, 수영 등 8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시는 각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 달 16일 대한수박업 중앙회 익산지부, 한국의식업중앙회 익산지부와 '진정한 익산 홍보 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외식·숙박업소 위생점검으로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회 기간 동안 남부지역 버스킹 추진 등 지역 행사와 연계방안을 검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익산=이재훈기자

군산시, '배달의 명수' 새출발 응원 이벤트 진행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출시 3주년과 신화기를 맞아 응원해주는 군산시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새출발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출시 3주년 기념 이벤트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사기간 배달의명수 앱을 통해 주문한 고객들 대상으로 '배달의명수'이라는 주시위 게임 참여 응모권을 제공한다. 게임 결과에 따라 총 1,150명에게 2천 원부터 1만 원까지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추가로 신화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신학기 맛이 이벤

트'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 이용한 배달의명수 주문내역을 자신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인증하면 경품추첨에 자동 응모되고, 추첨을 통해 총 105명에게 맥북에어,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에어팟, 갤럭시 버즈 프로, 할인쿠폰 등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새출발 응원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명수 앱 배너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고객센터(1899-8103), 군산지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새만금을 지키자' ... 군산시민이 나섰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출범

새만금지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군산시민들이 모여 범시민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관할권 분쟁 갈등을 종식시키고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새만금 관련 현안사항에 대응하고자 군산시민들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결집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승우 전 군장대학교 총장, 사무총장 최연성 군산대학교 교수를 비롯 각 분과별 다수 시민들로 구성됐다. 새만금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을 위해 언론자치교육·경제항만·문화체육·보건복지·건설건축환경·농축수산 등의 6개 분과로 구성됐다. 또 새만금방조제 길이인 33.9km를 반영하여 군산시민 339명으로 결성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400여명의 시민들이 결집하여 새만금에 대한 군산시

민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승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군산시민의 결집을 보여주는 출범선언문을 모두가 한뜻으로 외쳤고, 새만금 관할권 쟁취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새만금 관할권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만금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전달했다.

범시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지킴이'와 신항만건설지역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때부터 군산시가 행정과 재정을 투입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관리해온 구역'이라고 천명했다.

또, '대형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4만명에 달하는 공유수면 관할구역을 포기하고, 어업권 상실 등 지역경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만금 사업과 신항 건설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군산시 관할구역 내의 동서도로와 신항만을 군산시로 결정할 것과 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변경할 것,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자체간 분쟁 조정자 역할을 적극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승우 위원장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새만금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관할권 대응을 위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일준 군산시장 역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새만금 현안사항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화답했다.

한편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대응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청, 청원 힐링4U 상담센터 운영 개시

군산시가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및 치유를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군산시청 힐링4U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대상은 군산시청 청원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까지도 해당되며, 상담분야는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관계 및 양육문제 등이다.

매주 목요일에는 시청 내 상담실에서, 토요일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며, 별도로 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상담사가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 횟수 외에도 총 9회의 특강 및 집단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도와 업무로부터의 압박감을 덜어줄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환경감시원 점검 나서

익산시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정 대응해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9일 시는 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왕궁면 주교제 인근 농수로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양돈 농가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분뇨 무단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왕궁지역 환경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왔으며 적발 당일에 도 집행 근무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양돈농가는 지난 1일과 4일 이틀 간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1톤 용량 분뇨탱크에 담아 트럭으로 이동해 약4km 떨어진 주교제 인근 공공수역에 수차례에 걸쳐 불법 배출한 혐의다. /*익산=이재훈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